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프로그램의 과제

우수연_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I. 머리말

II.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문화 체험 프로그램

1.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2. 문화 간 이해를 위한 스캐폴딩
3.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프로그램의 흐름

III. 외국인 교사 워크숍과 외국인학교 프로그램

1. 외국인 교사들과의 파트너십 형성
2.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의 구성
3.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치

IV. 맺음말: 문화 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프로그램의 과제

우수연

I. 머리말

박물관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관람객이 오가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다.¹⁾ 박물관에서의 외국인 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요청과 함께 박물관의 새로운 인식으로 인해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의 박물관 방문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한국의 박물관 자료를 전시나 박물관 교육 수업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체험하여 한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외국인들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²⁾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개관 후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의 자녀, 이촌동 일본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당시에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이 정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운영되었고, 내부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현재 박물관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인가. 한국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외국인 관람객들의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고 상호소통하는 프로그램인가.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외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George Hein 저, 안금희, 김해경, 김선아, 정혜연 공역, 『박물관 교육론』(서울: 학지사, 2015), p.16.

2 이연수, 「외국인 대상 박물관 교육의 총체적 접근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22.

II.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문화 체험 프로그램

1.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기관의 철학과 목표를 대상에 맞추어 실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활동 중 하나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목표로 하는 교육 대상의 필요와 요구 파악을 전제로 한다. 2010년 진행된 외국인 관람객 심층면접 조사에 참가한 8개국의 외국인들이 건의한 ‘외국인이 바라는 박물관의 10가지 교육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1. 박물관 교육서비스 10가지 건의사항³⁾

구분	외국인 심층면접 답변자	총 18명 중복답변
1	쉽고(Easy) 재미(Fun)있게 소통하는 박물관	18
2	언어 소통의 어려움 해결	18
3	외국인전용 자국민 도슨트 활용	16
4	정보제공(유물관련 정보, 전문지식, 사전정보, 전문용어 자제)	16
5	전시설명(관람빈도별 눈높이에 맞는 설명, 쉬운 설명 필요)	16
6	시각적인 소통(Visual Communication)	12
7	오감체험, 박물관 축제	10
8	홍보와 마케팅의 쉬운 접근성	6
9	박물관 사전경험교육	5
10	멀티미디어(Multimedia), 터치스크린(Touch Screen) 활용	5

외국인 관람객들의 건의사항은 공교롭게도 미국 박물관 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가 발표한 박물관이 기관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National Standards&Best Practices for U.S. Museums 교육, 해석 부분⁴⁾

- 박물관은 기관의 교육 목적, 철학, 메시지를 정확히 명시하고, 박물관의 활동들이 이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최주영, 「외국인 관람객 개발을 위한 박물관 교육서비스 방안 연구」, 『예술경영연구』16(2010), p.21.

4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Commentary by Elizabeth E Merritt, *National Standards & Best Practices for U.S. Museum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2008), p.16.

- 박물관은 기존 고객뿐 아니라 잠재 고객들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 프로그램에 활용하여야 한다.
- 박물관의 해석적 콘텐츠는 적절한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박물관의 연구는 학술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박물관은 교육 목적, 콘텐츠, 관람객, 리소스에 적합한 방법과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명확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박물관은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해석의 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박물관은 해석적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적 활동의 계획과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모든 외국인 관람객이 공부를 하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 방문이 어떤 종류의 문화적 자극이나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기획 단계부터 효과적인 학습 환경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를 디자인하기 위해 중심이 되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콘셉트는 학습자, 지식, 평가, 커뮤니티이다. 학습자 중심 환경은 현재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 중심주의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현재에 학습해야 할 사항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게 도와준다. 지식 중심 환경은 어떤 주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만을 늘어놓는 단순한 지식 중심의 정보 전달이 아닌 현재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⁵⁾ 이런 배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전시, 교육, 해석 등 박물관 전반의 활동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2. 문화 간 이해를 위한 스캐폴딩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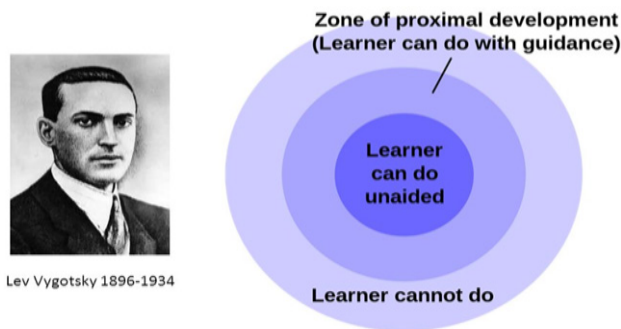
심리학자이며 교육학자였던 레프 비고츠키(Lev Vygotsky, 1896-1934)는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 했다(도 1). 근접발달 영역은 현재는 성숙하지 않았지만 성숙의 과정에 있는, 곧 성숙하겠지만 지금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기능을 정의한다. 이 기능은 발달 단계에 있어 ‘열매’라기 보다는 ‘꽃봉오리’나 ‘꽃’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발달 수준은 과거에 일어난 정신적 발달을 규정한다. 하지만 근접발달 영역은 앞으로 일어날 정신적 발달을 규정한다.⁷⁾

5 John D. Bransford, Ann L. Brown, and Rodney R. Cocking, editors, *How People Learn-Brain, Mind, Experience and School*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9), p.141.

6 스캐폴딩(비계설정):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근접발달영역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보다 능력 있는 또래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간의 거리 혹은 영역을 이야기 하는 개념이다. 이런 잠재적 발달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 즉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서포트가 필요하다. 이런 학습을 서포트하는 교수자 역시 지속적이고 새로운 서포트를 제공해야 하는데 박물관에서의 학습 역시도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도 1. 비고츠키의 근접발달 영역 [Zone of Proximal Development(ZPD)] (<https://slideplayer.com/slide/7693496/>)

이 서포트를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스캐폴딩은 학습자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습자들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스캐폴딩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교육 테크닉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가르칠 때 단순한 개념에서 시작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나, 어떤 개념이나, 문제, 콘셉트, 과정 등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설명하는 것도 스캐폴딩의 한 가지일 수 있다. 어려운 단어를 먼저 가르쳐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학생들이 그 전에 배운 수업의 개념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는 것도 스캐폴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개념을 박물관에 와서 전시품을 통해 설명하는 것도 스캐폴딩의 한 유형이다. 스캐폴딩은 특히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꼭 필요하다.

7 L.S. Vygotsky,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86~87.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나 외국인 관람객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다양한 스캐폴딩이 필요하다. 박물관의 전시와 콘텐츠를 가지고 모든 관람객에게 언어만 달리해 똑같이 설명한다면 전혀 다른 문화권의 외국인에게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 대상자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해를 위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소장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복잡한 전시 주제를 설명하며, 대중들과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 다른 배경을 가진 관람객들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⁸⁾

휴스턴미술관에서는 스캐폴딩 질문 방식을 통해 전시품의 이해를 돕는 “Learning Through Art”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⁹⁾ 이 부분은 전시품 감상에 다양한 스캐폴딩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사전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고, 결론을 도출해 내며 다른 참여자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는 현재 6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분청사기, 청자, 청화백자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문화 체험 프로그램

구분	한국화 체험	도자기 체험	나전공예 체험	인장 체험	서예 체험	금속공예 체험
내용	한국화 기법으로 꽃과 새 그리기	안료를 사용하여 청화백자 접시 만들기 등	나전칠기 제작 기법으로 나전 거울 만들기	전각 기법으로 한국 인장 만들기	족자에 한글서예 작품 만들기	금속공예 제작 기법으로 거울 및 함 만들기
체험 내용						
						

8 캐롤라인 랭 · 존 리브 · 비키 울러드 편저, 임연철·주명진 역, 『뮤지엄 매니지먼트, 관람객에게 응답하는 박물관 경영 전략』(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53.

9 Learning Through Art: Scaffolding and Questioning Strategies, <https://vimeo.com/118517221>.

이 체험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단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25명 이상의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3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참가자의 63%이상이 한국어학당 단체 참가로 이제 박물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한국어학당의 정규 커리큘럼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는 23%로 그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는데 직접 연락을 해 수업을 예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나 구의 지원을 받는 외국인 문화 체험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체험 전 수업은 보통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시각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한국의 대표적 예술을 체험해 보고 끝나기 보다는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고, 활용되었는지를 소개한다. 인장 프로그램의 경우, 인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하고,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된 인장과 박물관 소장품 중 인장이 찍혀 있는 문서나 회화작품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예를 전공한 젊은 예술가들의 지도로 인장을 만든 후에 직접 한지에 찍어 보고, 전통 필기구로 직접 편지를 써 보는 체험을 한다. 이를 통해 인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인장 프로그램은 한국 인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전 연계 인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얻은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전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한국 인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페르시아의 인장 등 세계의 인장도 보여 준다. 체험 중에는 참가자들과 각자의 나라에 있는 한국 인장의 역할을 하는 물건이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017년 한 해 동안 101회 운영된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중 인장 만들기가 69회로 총 프로그램의 68%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재미있고 유익했다, 박물관에 다시 오고 싶다 등)는 85%가 넘게 나왔는데, 특히 선생님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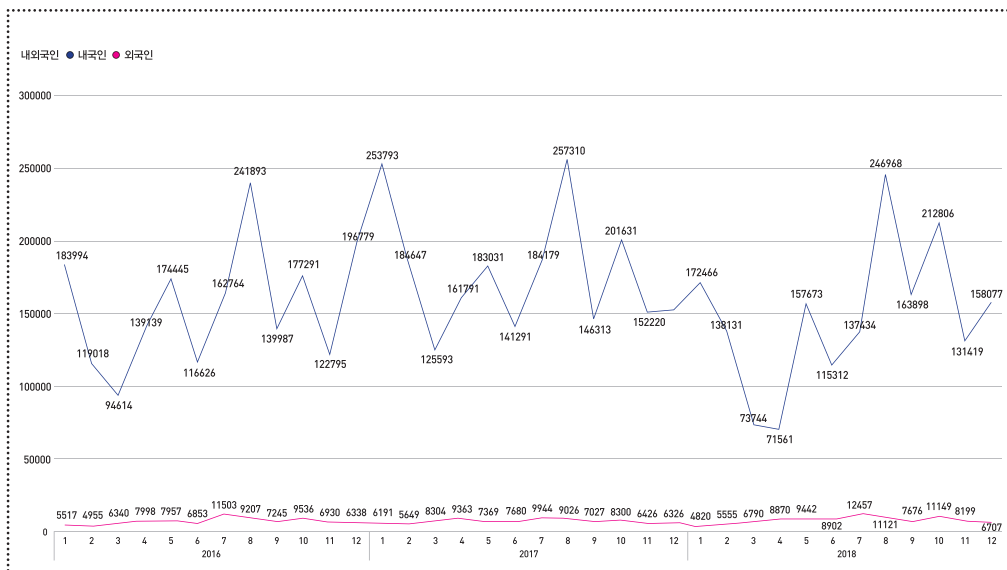
3.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프로그램의 흐름

국립중앙박물관은 1980년대부터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다른 문화권의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예술,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의 가족들이었다. 외국인 VIP 전시안내 프로그램,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전부였던 외국인 프로그램은 2005년 용산 이전을 통해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2005년에는 박물관 주변 커뮤니티와 연계하기 위해 미군부대 내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군 헬기장

이전 프로젝트에서 만난 미군들의 소개로 미군부대 내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들과 만나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학습에 초청하였다. 한국에서 언어장벽으로 부대 외부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했던 홈스쿨링 가족들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에서의 체험 학습을 자신들의 커리큘럼의 하나로 넣어 자주 방문하였다.

이후에는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처음 한국에 배치되는 장병들을 위해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갤러리 투어, 강의, 체험학습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음식을 체험해 보는 특별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나오는 음식을 모두 영어로 번역하여 브로슈어를 만들고, 음식을 직접 먹어보며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군, 국방부와 협력하여 기획하였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친근감 형성과 적응을 돕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군 배우자 클럽(United States Forces Korea Spouses' Club)과 미군부대 내 학교로 확장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총 관람객 수 3,476,606명 중 총 외국인 관람객 수는 111,602명으로 총 관람객의 3.2%를 차지했다. 국립한글박물관 외 주변에 다른 문화 기관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치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도 2. 상설전시실 내 · 외국인 관람객 통계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제공)

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프로그램은 외국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외국인 교사 워크숍, 외국인학교 프로그램 등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2017년 한 해 총 참가자 수는 5,519명이었다. 고객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상설전시실 전시해설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는 5,998명으로(도 2), 두 과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합치면 2017년 한 해 박물관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의 10%가량이 개별적인 전시 관람이 아닌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외국인 관람객의 10%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교사, 외국인 학생 등 외국인이 소속된 기관,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

Ⅲ. 외국인 교사 워크숍과 외국인학교 프로그램

1. 외국인 교사들과의 파트너십 형성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은 한국 내의 외국인학교 및 국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들과 교사다.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있지만 외국 커리큘럼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나 예술 부분의 수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 교사자문회의에는 고등학교 사회 교과 주임 교사, 고등학교 심리학 및 문화탐방 담당 교사, 중학교 역사 교사 등이 참여했다. 자문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만났다.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중·고등학교 미술, 역사, 사회 교과 주임 교사들과 만나 외국인학교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 자문회의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후 진행한 외국인 교사 워크숍은 강의실과 전시실 두 곳에서 진행하였다. 강의실에서 진행한 앞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 소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다가오는 특별전과 테마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전시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다. 박물관 담당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교사들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과 외국인을 위한 자료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그날 전시실에서 진행할 박물관의 특별전 연계 수업이 역사, 미술, 사회 교과와 학습기준(Learning Standard)에 어떻게 맞는지 설명했다.

특별전 전시 관람은 전시설명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박물관에서 제

공할 수업을 직접 보여 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년에 네 번, 상설전과 특별전시에 연계해 진행되는 외국인학교 교사 워크숍은 지금도 교사들 간의 소통의 장, 박물관의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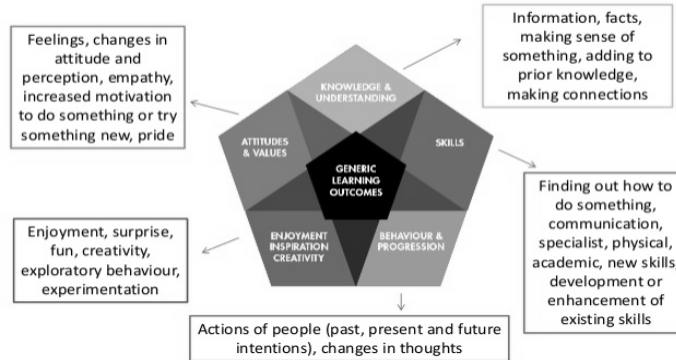
전시의 성격에 따라 목표로 하는 교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 가을에 열린 《쇠, 철, 강-철의 문화사》 전시는 과학교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초청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박물관 프로그램은 단지 역사, 사회, 미술 교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과학, 수학 등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였다. 3년간 진행된 외국인 교사 워크숍의 결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교사의 수는 전년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그 교사들이 데려온 학생들로 외국인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확대되고 있다(2016년 374명→2017년 1,118명). 지난 몇 년 간 자신의 학생들과 박물관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주중 방과 후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한다. 주중 저녁 시간에 열리는 교사 워크숍에 참여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측과 협의해 몇 개월에 한번 씩 있는 교사 교육일(Teacher in-service: 주중에 수업을 하지 않고, 교사 훈련을 진행하는 날)에 학교를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는 전교 교사들에게 박물관의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Korea Kent Foreign School).

2.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의 구성

영국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MLA)는 2008년 문화예술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의 질적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창의적 학습”(Inspiring Learning For All: ILFA)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ILFA는 박물관이 ①양질의 학습을 계획하고 ②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얻고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③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박물관 교육의 기획(plan)과 결과·영향 평가(evaluation), 옹호(advocacy)를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 ‘포괄적 학습결과’(General Learning Outcomes: GLOs)이며 이 연구는 영국 레스터대학의 박물관 갤러리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Museums and Galleries, RCMG)에서 수행하였다. GLO framework는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포괄적이고 상호연관된 성격을 담기 위한 것으로, <도 3>과 같이 모형화된다.¹⁰⁾

10 양지연 등, 『박물관 교육 평가지표(안) 개발 기초연구』(국립중앙박물관, 2017), pp.24-26.

The GLO framework



도 3. 포괄적 학습결과 체계 (The GLO framework)

(<https://www.artscouncil.org.uk/measuring-outcomes/generic-learning-outcomes>)

- 태도와 가치 : 느낌/태도와 지각의 변화/공감/무엇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동기 증가/자긍심
- 지식과 이해 : 정보/사실/어떤 것의 이해/기존 지식을 강화하기/연결하기
- 기술 :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됨/의사소통 기술/신체적 · 학술적 · 전문적 기술 습득/
새로운 기술 습득/기존 기술의 심화나 발전
- 즐거움, 영감, 창의성 : 즐거움/놀라움/재미/창의성/탐구적 행동/실험
- 행동과 발전 : 행동/생각의 발전적 변화

포괄적 학습 결과 모형(GLOs)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 결과를 평가할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단계부터 참가자들을 분석하고, 참가자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는지 결정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우선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은 하나의 포맷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크게 미술사,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필드트립을 오는 일반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수업은 외국인 강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한국인 강사, 내부 직원이 함께 진행한다. 미술사를 전공한 미국인 강사는 외국인학교 역사 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의 커리큘럼을 반영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외국인 교사 · 학생들과 연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수업 자체의 전달력이 높다.

대학교에서 미술사와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과의 수업은 수업 시작 전 학교 교사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세심하게 준비한다.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전시의 경우, 르네상스를 전공한 박사이며 현재 해군장교로 복무 중인 교사의 지인이 학교 측 토론 모더레이터로 동행하였다. 박물관 프로그램 담당자, 박물관 측 강사, 고등학교 담당 교사, 학교 측 강사가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전시구성과 내용, 전시실 수업 후 진행할 토론 주제를 공유하여 수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였다.

토론 수업은 단지 전시 내용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커리어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미술사에 관심이 있고, 미술사를 전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커리어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학교 측 강사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사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과 다르게, 미술사를 공부할 때 확장되는 사물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능력과 표현 능력, 글쓰기 능력은 군에서 극비정보를 다루는 정보 참모 등 정보를 분석하는 영역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진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 외에도 신라 금관과 조선시대 어진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 두 작품은 미술사 AP 수업(Advanced Placement: 대학학점 선이수 과정)에서 커버해야 하는 250개의 미술품에 포함되어 있다. 박물관 측은 이 두 작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학교 교사에게 제공하고, 전문 전시 안내자와 함께 전시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박물관과 3년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외국인학교 고등학교 미술사 교사의 이야기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학교의 미술사 AP 수업을 가르치는 데 소중한 리소스였다. 이 과정에서 250개의 미술품을 탐구해야 하는데 매 학기 국립중앙박물관은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미술품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가능한 특별전을 진행했다. 박물관의 전시 덕분에 학생들을 로마, 파리, 런던, 뉴욕 같은 먼 도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전시품들을 일 년에 두세 번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과서로만 볼 때는 알 수 없었던 전시품의 크기, 재질, 앞면과 뒷면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그 차이점에 놀랐다. 교사로서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미술사 과목에 대한 열의가 확대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상설전과 특별전을 보고, 또 교감하면서 글쓰기와 학과 점수도 향상되었다. 내 미술사 수업에서 박물관 관람은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단지 미술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 년에 두 번, 5월과 10월에 몰려있는 외국인학교의 필드트립을 위해 상설전시실에서 몇 개의 주제

를 잡아 영문학습지(English Worksheet)를 개발하였다. 고려청자, 사랑방, 불교조각, 야외전시를 주제로 셀프가이드가 가능하게 제작된 학습지에는 주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직접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학교 단체가 상설전시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박물관 에듀케이터는 이 학습지를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다. 2015년에는 외국인학교 고등학생 단체와 4일간 전시실 감상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습지는 참가자들이 전시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3.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치

예술작품이나 어떤 대상이 하나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옮겨지게 되면, 장식적인 것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한다. 동양의 양탄자나 도자기가 가진 원래의 의미와 가치는 종교적인 것이거나 부족의 상징과 같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불화나 도교 소재의 회화를 보고도 그 속에 표현된 종교적 의미를 알지 못하듯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서양 사람들은 동양의 장식품들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¹¹⁾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이나 동양권에서 성장한 학생들과 서양에서 온 학생들과의 수업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해의 차이(Gap)를 좁히기 위해 외국인학교 수업은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방을 설명하는 학습지에는 유럽의 살롱 문화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외국인학교 교사들과 의논해 박물관에 오기 전 도자기와 연계된 작품을 읽고 오는 문학과 연계한 수업도 진행했다. 재미교포 아동문학가인 린다 수 박(Linda Sue Park)이 쓰고, 뉴베리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사금파리 한 조각(A Single Shard)』은 12세기 고려 시대에 도자기 빚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던 목이라는 소년의 모험이 중심이 되는 소설이다. 고려청자를 주제로 한 감동적인 소설을 읽고 온 학생들에게 청자실은 그저 도자기들을 쭉 전시해 놓은 의미 없는 전시실이 아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진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한 완벽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들보다 부서져 있는 토기 편들이, 그 토기편이 가득 담겨 있는 진열장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직접 전시장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청자 학습지는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시로 시작된다(도 4). 셸리(Percy Bysshe Shelley)도 말하고 있듯이 “시는 이

11 존 듀이 저, 박철홍 역, 『경험으로서 예술 1』(서울: 나남, 2017), pp.268-269.

성에 의해서는 포착할 수 없는 수천의 사고가 결합된 덩어리를 일시에 마음에 던져줌으로써 일순간에 마음을 각성시키고 확대해”¹²⁾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 감상으로 그 날 함께 학습할 주제에 대한 감성적 접근을 시도하고, 청자를 자세히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는 미션을 준다. 그 미션은 큐레이터가 되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전시될 청자 디지털 전시를 기획하는 미션으로, 청자를 관찰하고 직접 그려보는 것과 함께 자신의 전시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글로 표현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도 4. 전시 연계 학습지 (좌: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우: 고려청자)

이런 수업을 위해서 박물관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쓰는데 프랑스 학교의 경우, 프랑스어를 하는 직원이 프랑스어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언어는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외국어 진행은 생소한 문화와 예술에 대해 친근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새롭고 복잡한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서울독일학교와 진행한 화조화 부채 그리기 프로그램은 미술사를 전공한 회화 강사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담당 직원이 영어로 통역한 후, 그것을 다시 담당 독일 선생님이 독일어로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은 ‘독일에도 이 화조화에 등장하는 새가 있나요?’, ‘그 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등의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우는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되었다.

야외조각 전시 공간 수업 중에는 학생들을 주춧돌처럼 만들어 놓은 사각형의 돌들 위에 모두 올라가게 하고 노끈을 활용해 학생들을 쭉 둘러 고고학자들이 예전 집터를 발굴할 때 건물의 크기 등을 어떻게 추측하는지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이 활동에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이런 활동은 말이나 책으로 배우는 어려운 고고학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관 또한 외국인학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학습공간이다. 한국

12 존 듀이 저, 박철홍 역, 『경험으로서 예술 2』(서울: 나남, 2017), p.185.

의 역사뿐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중앙아시아의 역사, 신안해저유물실의 경우에는 당시 중국의 무역 활동에서 해양 실크로드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맺음말: 문화 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문화 간 이해교육의 논자들에 따르면 교육 앞에 붙는 ‘다문화적’이라는 표현이 주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변화의 진행과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인 반면, ‘문화 간’이라는 표현은 교육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목표설정 및 구상과 연계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¹³⁾ 다문화 교육에서는 타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이들 타 문화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용인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에 비해 문화 간 교육은 다문화 사회 안에서 서로 상이한 문화 집단 간 수동적 공존의 범주를 넘어 상호 이해, 존중과 대화를 통해 더욱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¹⁴⁾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각도로 진행된 박물관 이용자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외국인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단순히 한 방향 소통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의 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봉사기관으로서 박물관의 기능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용자의 특성과 그 욕구들을 잘 이해¹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이 또 다른 학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세계사, 미술, 과학의 개념이나 주제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획특별전, 상설전 모두 외국인학교와 연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문화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모든 문화는 공평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역사와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식,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 리소스를 갖춘 박물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외국인 뿐 아니라, 길게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3 조상식·이종하, 「‘문화간 이해교육’의 교육 이론적 개념과 그 실천적 함의-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006), p.47.

14 유네스코 교육센터 질적 교육증진국 평화인권교육과 편저자, 서종남 번역, 유네스코·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서울: 도서출판동녘, 2009), pp.216-217.

15 배기동, 이연수 편저,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8), p.18.

Developing Programs for International Visitors and visitors with diverse backgrounds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oo Souyeon_Educator, Educat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Since its relocation to the new building in Yongsa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has been running programs for visitors of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foreign workers, those married to Korean nationals,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 Japanese community living in Ichon-dong, the local area. The NMK's programs for international visitors, who accounted for 3.2 percent of total attendance in 2017, are developed with a focus on understanding the world that we live in within the context of the similarities and disparities among different cultures, and the recognition that all cultures must be respected and treated as equal.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and other factors, the programs for international visitors or visitors with diverse backgrounds must be planned and developed differently than those for visitors who are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The most important issue regarding all programs for international visitors is the kind of experience to be provided.

This paper examines the kind of services international visitors seek from the museum, and how diverse programs designed for them are operated. In the process, it explains why the concepts of Lev Vygotsky's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and "scaffolding" for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must be applied to teaching students of the various NMK programs for international visitors. It also shares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programs with the aim of deducing the generic learning outcomes such as attitudes and valu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enjoyment, inspiration and creativity;

and activity, behavior and progression, as presented by the British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 initiative called Inspiring Learning for All.

The museum must be a place where anyone can freely explore history learned through everyday life or at school, and the concepts or themes of world history, art, and science. The objective of the NMK's programs for visitor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s more than simply providing Korean history and cultural content; these programs are designed to be learning resources in expanded areas such as education across cultures, ways of using the museum, and ways of seeing the exhibits. By doing so, the goal is to have the diverse members of Korean society feel that the museum is a comfortable place and to encourage them to visit frequently. Indeed, in-depth research and analysi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visitors to the museum sh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making the museum an open place available for everyone.